



# 다솜<사랑>이야기

2005년 3월19일 제3호

펴낸이 : 교장 최미영  
 엮은이 : 교사 박은경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 95035 TEL:(408) 934-3600 FAX:(408) 934-1092 Website:www.dasomks.org

## 다솜 가족들에게

2005년도 봄 학기를 개강한지도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가며 개교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04년 3월 13일 본교의 건너편에 위치한 레지던스 인을 빌려 학교를 시작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에는 학생이 겨우 32명에 불과 했고 각 반의 크기도 대 여섯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이 과외 수업과 같은 분위기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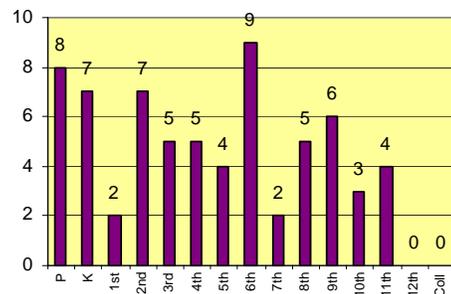
1년이 지난 현재 학생 수는 67명으로 늘어났고 학생 수가 꼭 찬 반에서는 등록 요청이 있었지만 다음 학기까지 기다려 주십사는 인사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을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 뜻을 같이하는 동지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격려해주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이사회와 교회 어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겨우 1년 밖에 되지 않은 학교이지만 여러 면에서 학교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교실이나 장비 및 환경면에서도 타 학교의 추종을 불허하며 개설 2개월 만에 2000여회의 조회 수를 보여주고 있는 다솜 웹사이트도 메일링 서비스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어떤 한국어 선생님은 우리 다솜 웹의 선생님 방에 들어오고 싶다고 이멜을 보낼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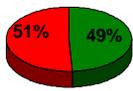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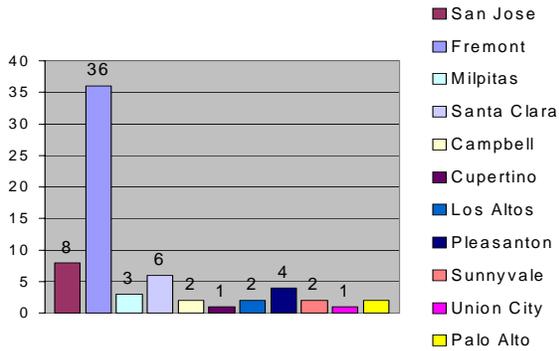
다. 거리가 멀다고 학교를 바꾼 학부모님들로부터 소식을 들읍니다. 편하려고 학교를 바꾸었는데 자녀들이 다시 다솜 한국학교에 가겠다고 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학교가 이 지역의 한인 2세들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선생님들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한국학교를 돕는 리더 학교가 되는 것도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2세들에게 리더십을 키우는 일 뿐 아니라 선생님들 스스로가 섬김의 리더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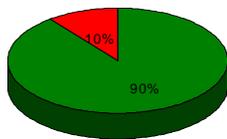
2005년 3월 19일  
 다솜 한국학교 교장 최 미 영 드림

### ◆ 학교 현황 소개





LWKBC



### ◎ 3 & 4월의 행사 및 광고

- ◀ 특활이 있는 날: 3/12, 3/26, 4/9, 4/30
- ◀ 아침 조치가 있는 날: 3/19, 4/16
- ◀ 개교 기념식: 3/19, 오전 9시 30분
- ◀ SATH 한국어 모의고사: 4/23  
(7학년 이상 모든 학생 응시함)
- ◀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교사 연수회: 4/2
- ◀ 연구 수업: 3/19 (장혜경 선생님),  
4/2(박은경 선생님), 4/16(방은주 선생님)
- ☛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 이하나 부모님, 이형진 부모님,  
정소희 부모님, 모크세스 부모님  
점심봉사(2월) : 모크세스 부모님, 박미소/  
박성현 부모님, 홍소연/홍희연 부모님  
점심봉사(3월) : 오세진, 윤민섭/제인 부모님
- ☛ 특활비를 부탁드립니다.  
각 학기당 특활비는 \$10입니다.



3 월

### 생일 축하해요

- 3/13 김민하, 김유신, 김태균
- 3/15 황정은, 홍서영
- 3/17 유아림, 유희림
- 3/24 심영보
- 3/29 김민지



### 한국의 국경일 & 절기

- \* 삼일절(3/1) - 독립 운동 기념일  
태극기를 다는 날
- \* 식목일(4/5) - 나무를 심는 날
- \* 한 식(4/5) - 찬 밥을 먹는 풍습  
조상의 묘를 돌보는 날



### 도전! 퀴즈 한국

\*지난 1 & 2월의 아침 조회 때  
교장 선생님 말씀에서 뽑은 퀴즈입니다.

1. 대한민국의 동쪽에 있는 바다 이름
2. 태극기의 검정 부분으로 건곤이감이라고 부르는 것
3. 황해(서해)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
4. 태극기에서 우주를 뜻하는 태극이 나타내는 뜻
5. 설날에 입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옷

보기 설빔, 중국, 동해, 창조, 4괘

# 사 랑 의 학 교



## 옥수수반 < 방은주 선생님 >

안녕하세요? 다솜 한국학교의 꿈나무 옥수수반입니다. 저희 반은 꿈나무답게 유일하게 다솜 한국학교내에서 고른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른 실력뿐 아니라 발표력도 왕성하여 손드는 횟수가 평균 5회 이상이 됩니다. 모두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많답니다. 교실 안에서 한국말만 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쓰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노력과 자극은 영어를 쓰는 학생들을 무색하게 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 지저의 고민이자 노력의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저는 토요일이 많이 기다려지는데 학생들도 같은 마음하기를 고대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일주일 에너지의 충전이 다 된 느낌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학생들이 던졌던 많은 질문과 이야기들로 웃으며 집으로 간답니다. 이런 꿈나무들이 몇 년 뒤에는 한인사회의 기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사회의 밑거름이 되어 세계를 주름잡는 한인이 되리라 확신하고 자부합니다. 우리들의 꿈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거름 주고 물주고 가지 쳐주며 튼튼히 자라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 선생님들의 일이요 어른들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열심히 돕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수수반 파이팅!!



## 진달래반 < 박은경 선생님 >

토요일 아침마다 항상 분주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를 향합니다. 이제는 교단에 서는 일이 떨리지 않을 법도 한데 말입니다. 매 학기마다 늘어나는 학생들의 수에 힘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요즘의 날씨만큼이나 화창해지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넘쳐나는 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읽고 쓰는 시간보다는 간식시간과 게임시간이 더 즐거워도, 그리고 단군신화 역할놀이에서 대사가 없는 쑥과 마늘의 역할을 만들어서까지라도 함께 어울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3월에는 우리 반 친구들이 명제를 칭찬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분위기 메이커로 말입니다. 앞으로 더욱 칭찬받는 학생과 일이 많아지길 기대할게요.



## 바둑반 < 김원구 선생님 >

특활반이 있는 날이 다가오면 늘 걱정이 앞선다. 바둑을 직접 두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남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바둑 규칙은 알려주고 두게 하면 조금씩 터득해가겠지 하는 바람이었지만 바둑을 둔답시고 엉터리 바둑을 조금 두다가는 이내 싫증을 내더니 바둑을 포기하고 알까기를 하는 것이다. 바둑반에서 알까기라니... 바둑을 모르는 아이에게는 오목이라도 두게 해서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차츰 들게 되었다. 오목은 다행히 많은 아이들이 두어본 것 같았다. 형규가 2점을 접힌 오목에서 선생님을 이겼다. 아주 의기양양이다.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이제 1시간의 바둑반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가닥을 조금 잡은 것 같다. 30분동안은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바둑 해설을 해주고 30분은 바둑이나 오목을 두게 하며, 가끔은 노트북 컴퓨터 두대를 이용하여 두 팀으로 나누어 바둑 대결을 하고 나중에 해설하는 방식을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알까기는 절대 안돼용~~



## 탈춤반 < 박주희 &정은경 선생님 >

조선시대에 크게 유행한 탈춤은 말 그대로 탈을 쓰고 노는 놀이랍니다. 자신을 숨기는 탈(가면)을 쓰고 평소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내는 행위이지요. 주로 여자들로 구성된 무용인들이 추기 보단 남자들이 또 농악이나 대중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는 춤이랍니다. 이번 학기 탈춤반은 9명의 크고 작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박자와 리듬에 상관없이 흥에 겨워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는 어린 친구들, 브레이크 댄스에 젖어있는 몸을 한국의 전통악기인 장구의 장단에 맞추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는 큰 형님들 그리고 누님들, 마지막 줄에 서서 아이들을 돌볼 겨를도 없이 탈춤 가락에 폭 빠지신 선생님들...,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어린 친구들은 한국 학교에 올 때마다 탈춤을 추고 싶대요. 여러분! 다음 학기에는 꼭 탈춤반에 합류해 보세요. 학기가 끝날 즈음 탈을 쓰고 보여드릴 저희 탈춤반의 활약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 Ψ 우리들의 이야기 Ψ

###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면

김병석(무궁화반)

내가 할아버지라면 다른 할아버지와 다를거다. 맨날 운동을 해서 건강할꺼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숙제도 같이 하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여기저기 여행이든지 나들이 하러 같이 가겠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용돈도 많이 주겠고, 여러 가지 장난감이든지 사탕이든지 사 주겠다. 내가 할아버지라면 아주 재미있는 할아버지가 될꺼다.

### 할머니께서 미국에 오신다면

이수지(무궁화반)

할머니께서 미국에 오신다면 많은 것들을 할거예요. 우리 집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아침마다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할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할머니와 요리도 같이 할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옷도 많이 사 드릴 거예요. 한국 비디오도 보겠어요. 집에 과자도 많이 먹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빵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빵도 많이 살 거예요. 할머니께서 오신다면 할 게 너무 많네요.

### 미장원에 갔던 경험

김현지(진달래반)

내가 8살 때, 아빠가 베트남 미장원에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촌스러운 아저씨가 내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짧게 했어요. 머리를 자르는 동안 그 아저씨는 나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못생겼고 코털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미장원에 가지 않았습니 다. 나는 지금은 한국 미장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계절

이지형(진달래반)

네 계절 중에 나는 봄이 제일 좋습니다. 봄에는 아주 따뜻하고, 예쁜 꽃도 많이 핍니다. 봄방학도 있어서 좋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은 너무 길니다. 봄에는 뭐든지 다 웃고 행복합니다. 어디를 가도 하늘이 깨끗하고 날씨가 좋아서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 ☞ 학생 앙케이트 ☞

### 저학년용

#### 1. 한국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나 말은?

1위 : 엄마

기타 : 못난이, 피시방, 김치, 착하다, 바나나, 꽃, 아빠, 호박, 그림, 친구, 가족, 다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 밥, 토끼, 장난감, 책, 사탕, 고양이, 동생, 강아지,

#### 2. 가장 좋아하는 한국 과자 이름은?

1위 : 새우깡

기타 : 병두기(뽕튀기?), 빼빼로, 뿌셔뿌셔, 고래밥, 초코파이, 오감자, 에이스, 바나나킥, 조리퐁

### 고학년용

#### 1. 나만의 별명

1위 : 없어요

기타 : 축새, 바나나, 원숭이

#### 2. 부모님께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

1위 : 잘했어(칭찬의 말)

기타 : 용돈줄게, 친구 집에 놀러가라, 집에서 나가, 사랑해

#### 3. 비가 오면 생각나는 것

1위 : 잠

기타 : 집, 눈물, 코코아, 봉어빵, 밥, TV, 좋아하는 찬송(Showers of Blessing) 친구, 강아지  
“왜 자꾸 비가 오는 거야?”

### 다솜 사랑 소식지 광고

☺ 다솜 기사를 모집합니다.(민들레, 진달래, 무궁화)

☺ 다음 호에는 “고마워 ♡ 사랑해” 코너와 “칭찬합니다” 코너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 기사를 자원하시거나 글을 주실 분은 교장선생님이나 박은경 선생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